정철동 "4세대 OLED, AI TV 최적화… 프리미엄 시장 공략"

〈LG디스플레이 사장〉

LGD 신기술 설명회

올해 경영키워드 'J·U·M·P' 제시
OLED 중심 사업구조 고도화 방침
'프라이머리 RGB 탠덤' 기술 구현

정철동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이 16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4세대 OLED 패널 기술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디스플레이 직원이 4세대 OLED 패널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소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이 인공지능(AI) TV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4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패널을 공개했다. 또 정 사장은 올해 경영키워드로 도약을 위한 '점프(J·U·M·P)'를 제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출시되는 AI TV가 최대 8K 이상의 초고화질을 구현함에 따라 패널 또한 높은 휘도와 에너지 효율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LG디스플레이는 올해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올해 반드시 턴어라운드"

정 사장은 16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4세대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기술 설명회'에서 "지난해 반전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원가, 생산 등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적 가치를 만들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천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을 현재 진행 중인데, OLED 사업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경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26조6153억원, 영업손실 56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출은 전년(21조3308억원) 대비 25% 증가했고, 영업손실 규모는 전년(2조5102억원) 대비 약 2조원 가량 줄었다.

LG디스플레이는 이같은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올해 OLED 중심의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도약을 위한 올해 경영 키워드로 '점프(J·U·M·P)'를 제시했다. 점프는 ▲저스트(Just in time·진정한 변화 위한 적기) ▲유니크(Unique value·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적 가치) ▲마켓(Market leadership·올레드로 시장 선도) ▲파트너십(Partnership·고객이 신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 의미를 담은 영단어 앞글자에서 따왔다.

다만, 정 사장은 올해 업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 4세대 OLED TV 패널 선봬

이날 LG디스플레이는 AI TV 시대에 최적화된 4세대 OLED TV 패널을 선보였다.

LG디스플레이의 4세대 OLED TV 패널은 최대 휘도 4000니트(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를 달성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휘도다. 휘도가 높을수록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휘도를 화질의 핵심 요소로 꼽는다.

이번에 공개한 4세대 OLED TV 패널의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프라이머리 RGB 탠덤' 구조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이는 RGB(적·녹·청) 소자를 독립적으로 쌓아 빛을 내도록 한 것으로 LG디스플레이만의 독자 기술이다.

회사는 그동안 에너지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색 소자를 두 개 층으로 쌓고 한 개 층에 적색, 녹색, 황색 소자를 모두 배치하는 3개 층 구조의 광원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기술에 한 개 층을 더 추가하고 생산되는 빛의 양도 더 늘렸다. 이는 두 개의 청색 소자층과 각각 독립된 적색, 녹색 소자층을 더해 총 4개층으로 광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LG디스플레이는 색 표현력을 강화해주는 컬러 휘도도 2100니트를 달성해, 직전 세대(1500니트) 대비 40% 향상시켰다.

이와함께 전력 소모가 크게 늘어나는 AI TV에 맞춰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시켰다. 소자 구조 및 전력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 패널의 온도를 낮추는데 성공하면서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20%(65인치 기준) 개선됐다.

LG디스플레이는 또 패널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과 패널 내부로 흡수됐다가 반사되는 빛을 99% 차단하는 특수 필름을 적용했다. 이는 한낮의 거실에서도 불이 꺼진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빛 반사 없는 완벽한 블랙을 구현한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양산하는 최상위 라인업에 4세대 OLED TV 패널을 탑재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격차를 공고한다는 전략이다. 게이밍 OLED 패널에도 4세대 OLED TV 패널에 적용된 프라이머리 RGB 탠덤 기술을 순차적으로 탑재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이후 첫 주주총회 개최

송보영 신임대표 선임… 통합 항공사 체제 '초읽기'

송 대표, 대한항공서 '항공통' 평가
조성배, 강두석 신임 사내이사 선임
LCC 등 양사 통합 가속화 전망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 첫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진들을 선임했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운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16일 아시아나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건 승인으로 송보영 대표(**사진**)와 조성배·강두석 부사장이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현정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송보영 신임대표는 지난 19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한국지역본부 여객사업본부장, 모스크바지점장, 미주지역본부장 등을 거친 '항공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신임 대표는 항공업과 여객영업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의 DNA'를 이식하는 작업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함께 선임된 조성배 부사장과 강두석 부사장은 대한항공에서 각각 자재 및 시설부문 총괄을 맡았으며 인력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재무 전문가, 최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 중인 석학이며 김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다.

이날 주주총회 기준이 된 아시아나항공의 총주주수는 14만6289명, 발행주식 총수 2억599만711주다. 이날 약 1억6889만7464주(81.99%)에 대한 의결권이 행사되면서 주주총회 정족수가 충족됐다. 현장에 참여한 주주 숫자는 218명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으로 참여했다. 지난 2년여간 아시아나항공을 이끌어온 원 대표이사는 고문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원인사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산하 LCC들이 각각 합쳐질 통합 항공사 출범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안전과 서비스라는 근간을 토대로 항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부분변경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가 1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제네시스 수지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포토 미디어 데이'를 열고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배터리업계,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 전망

판매가격 하락세… 역래깅 겹쳐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4분기에도 영업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배터리 판매가격 하락이 지속된 점과 역래깅(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원재료 투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사들의 4분기 동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미뤄진 분위기다.

유럽 경기 침체 영향에 따른 판매량 부진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의 완성차 CO_2 배출규제와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재개에도 불구하고, 올해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정체는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25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세제혜택 금액은 3773억원이다.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영업손실은 628억원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3년여 만이다.

삼성SDI와 SK온 역시 증권사에서는 적자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SDI는 4분기 매출액 3.8조원으로 전년대비 32.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손실 123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대비 70.9% 감소한 수치다. 4분기 삼성SDI의 전기차 사업부 주요고객사 및 브랜드의 친환경차 인도 대수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SK온은 AMPC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독립적인 수익 모델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SK온은 4분기 2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전 분기 240억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를 기록한 지 1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럽 내 2만5000유로 미만의 보급형 전기차 출시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도 존재한다. 배터리사들은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확대 기조를 지속하며 신제품 개발에 뛰어들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현대자동차

'EV 에브리 케어' 리뉴얼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라이프 통합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차가 전기자동차(EV)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 케어 프로그램 'EV 에브리(Every) 케어'의 혜택과 보장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 EV 에브리 케어는 ▲블루 안심 점검 서비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 ▲긴급충전특약보험 ▲잔존가치 보장 대상 확대 등의 혜택을 강화했다. 또 ▲충전 크레딧 또는 홈충전기 지원(설치비 포함) 혹은 EV 전용 타이어 2본 중 선택한 하나를 제공하는 'EV 구매혜택' ▲신차 교환 지원 ▲일반 부품 보증 연장 및 바디케어 서비스 등의 기존 혜택도 포함한다.

/양성운 기자 ysw@